

근대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상의 변천과 가정교육*

김영철(金暎鐵)**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염상섭의 『삼대』(1931),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5-1978), 그리고 박범신의 『소금』(2013)이라는 세 장편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상을 추출하고, 그 아버지 상이 드러내는 부권의 변천을 통하여 현재의 가정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아버지 상을 추출할 때 사용된 연구방법은 행위의 제도적 차원에 주목하는 문화분석이다. 세 근대소설에서 선택된 주인공 아버지들은 『삼대』의 조의관과 조상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김불이, 그리고 『소금』의 선명우 등 네 명이다. 소설 속에 드러난 이들의 행위로부터 네 가지 문화적 아버지 상이 도출되었다. 이 상들은 1930년, 1970년, 그리고 2010년 어간의 아버지 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 근대적 아버지 상의 변천을 아버지가 가진 물질적, 화폐적 권력과 정신적, 이념적 권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부권의 원천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구원적 이념의 권위이며, 부권은 전반적으로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구원적 이념의 권위는 가정생활의 한 측면으로서의 가정교육의 핵심을 이룬다. 오늘날 아버지들은 양육자와 훈육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할 때, 가정교육은 그 포괄성과 고차성을 잃게 된다.

주요어 : 문화적 아버지 상, 가정교육, 삼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소금

* 이 논문은 2015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아버지는 하나의 문화적 구성물이며, 인류를 생존의 자연적 삶에서 문화의 인간적 삶으로 데려 온 사람이다(Zoja, 2001/2009: 31-33). 선사시대 언젠가부터 남자는, 그 역할을 배워야만 하는 아버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학습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 만큼, 그 역할은 망각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미개사회를 대상으로 한 문화인류학자의 연구물을 원시사회에 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원시수렵채집 사회의 아버지는 대체로 '친밀성(intimacy)'의 특징을 띤 양육자이다(Hewlett, 1992). 이후 정주생활은 집약적 농업과 목축을 통하여 잉여물의 축적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동체 내에 계급분화를 가져왔다. 독재적인 권력자의 출현을 저지하는 사회시스템을 작동(Clastres, 1974/2005: 11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족 간의 전쟁을 기화로 공동체에 잠재되어 있던 원국가가 현행화된다(Deleuze, 1980/2001: 13장). 여성의 지위는 정주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부족공동체의 시기부터 하락했지만, 가부장권이 결정적으로 득세를 하게 되는 국가의 현행화 이후에 그 하락은 더욱 가속화된다(柄谷行人, 2010/2012: 87-89). 국가의 왕권과 가정의 부권은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세력으로서 점점 더 득세하게 된다. 국가시대의 아버지는 대체로 '엄격성(austerity)'의 특징을 띤 훈육자이다. 오랜 국가의 독점시대를 거쳐, 자본이 인간의 살림살이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근대'가 도래한다. 서구에서 시작된 이 근대적 기획의 핵심적 주도세력은 부르주아이다(이종영, 2008: 117). 그들은 시민혁명을 통하여 기존의 국가를 장악하고 산업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었다. 농촌공동체는 파괴되었고, 도시로 몰려 든 농민은 임노동자라는 근대적 주체로 형성되었다. 부르주아 출신의 아버지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어느 정도 부권을 유지했지만, 임노동자의 아버지는 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공장과 같은 '비가시성'의 영역으로 밀려나 부권을 상실해 갔다.

근대의 연장선에 있는 오늘날, 부권에 관한 두 가지 세론이 있다. 하나는 부권의 실추를 개탄하면서 부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부권의 실추를 시대적 경향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에게 소통이나 양육의 능력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부권의 실추를 개탄하건, 그 실추를 시대적 변화로서 받아들이건 간에, 이 두 가지 세론은 모두 부권의 실추라는 시대적 변화를 당연한 전제로 가지고 있다. 부권에는 강제력과 자발성의 차이, 다시 말하여 타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복종을 강제하는가 아니면 타자의 동의하에 복종을 도출하는가에 따라 구분되는 권력의 측면과 권위의 측면이 있다. 근대적 아버지에게도 권력과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부권의 그 두 측면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는가?

전통사회의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근대사회의 부권은 현저히 쇠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의 부권은 '군사부일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국가적 왕권의 가정 판(版)으로서 강력한 것이었던데 비해, 근대사회의 부권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 상응하여 그 힘이 약해졌다. 그런데

만일 근대사회에만 주목하여 본다면 부권의 추이는 어떨 것인가? 아버지의 권력과 권위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근대라는 시기를 관통하면서 부권은 하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제국의 주변부에 속해 있다가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여 소비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근대소설을 자료로 하여 아버지 상을 도출하고, 부권의 변천 추이를 권력과 권위의 측면에서 검토하려는 연구이다. 더불어 이 논문은 양육과 훈육을 넘어서는 교육의 일단을 근대소설에 묘사된 가정생활 속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아버지 상 연구의 의의는 궁극적으로 가정교육과의 관련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교육은 가정생활의 특정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가정생활 전체에 두루 퍼져있는 교육적 측면을 말한다. 이 말은 ‘훈육’과 ‘양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훈육 및 양육과 개념적으로 구분해 사용한다(김영철, 2014, 2015). 오늘날 ‘프렌디’(친구 같은 아버지)라는 말이나 ‘아빠, 마더하세요.’(양육자로서의 아버지)라는 공익방송의 문구는 아버지의 양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EBS 다큐프라임(EBS <아버지의 성> 제작팀, 2012)은 아버지의 양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관점에 서있는 반면에, 2013년의 EBS 다큐프라임(EBS <파더쇼크> 제작팀, 2013)은 아버지의 훈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관점을 드러낸다. 훈육이 사회적 규범이나 법, 한 마디로 상징계에 자녀를 안착시키는 기능을, 교육이 상징계적 경계를 넘어가는 창안의 기능을 지칭한다고 볼 때, 아버지의 교육적 기능의 핵심적 특징은 무엇인가?

근대적 아버지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문화적 존재가 된 이래로, 선사, 고대, 중세, 근대 등의 시대에 따라 아버지 상은 변모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은 지역별로도 파악될 수 있다. 아버지에 관한 보편적 존재론은 이 시공간적 특수성에 의해 확보될 것이다. 현재-여기와의 시공간적 거리가 가까운 만큼, 근대적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여 새롭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930년, 1970년, 2010년 어간의 아버지 상의 ‘변천’에 주목한다면, 근대적 아버지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하 II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의 문화분석과 작품 및 인물의 선정기준을 논의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선정된 아버지의 행위를 추출한 뒤 아버지 상을 제시하고, 마지막 IV장 결론에서는 근대적 아버지 상의 변천을 부권의 추이에 따라 재검토해 보고 가정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연구방법과 작품 및 인물의 선정기준

1. 연구방법

아버지 상은 그 상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다. 우선 거론될 수 있는 아버지 상의 담지자는 아버지 자신과 자녀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어떠한 아버지이며 어떠한 아버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자기의식적 상을 가진다. 아버지 상에 대한 아버지 자신의 이러한 지각과 판단을 ‘아버지의 자아상’이라고 불러 보자(김영철, 양진희, 2014). 한편,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이며 어떠한 아버지여야 하는가 하는 타자의식적 상을 가진다. 자녀가 상상적 경쟁과 상징적 강제에 따라 가지게 되는 이러한 아버지 상을 ‘아버지의 이미지’라고 부를 수 있다(김영철, 2014).

아버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자아상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개인이 담지하고 있는 아버지 상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을 넘어서는, 또는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아버지 상이 있을 수 있다. Hanson(1975: 96-99)은 개인이 ‘그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징이 여전히 모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Turner(1967)의 연구에 기대어 이 질문에 긍정적 답을 하고 있다. 가령 의례의 의미는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제도들의 조직(organization of institutions)’에 원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혼인식의 의미는 혼인 당사자들 간의 사랑이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가문 간의 결합을 통하여 인류의 종족적 진화를 도모한다는 문화적 차원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Hanson의 견해에 따라 연구자는 개인이 담지하고 있는 아버지 상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문화가 담지하고 있는 아버지 상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된 아버지 상을 탐색한다. 이를 ‘문화적 아버지 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개인이 담지하고 있는 아버지 상(아버지의 자아상과 아버지의 이미지)과 문화적 아버지 상은 상호 환원되지 않는다. 이 말의 요점은 문화적 아버지 상으로부터 개인적 아버지 상을 추출하거나, 개인적 아버지 상으로부터 문화적 아버지 상을 추출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Hanson(1975: 4)은 인간현상에 관한 상이한 두 가지 형식의 질문으로서 개인적 질문과 문화적 질문(‘제도적 질문’)을 든다.¹⁾ 개인적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동기와 의도적 의미를 묻는 한편, 문화적 질문은 행위자의 의식과는 무관한 행위 그 자체의 의미, 가령 신념 체계, 관념 체계, 사회적 경제적 조직의 형식, 행동의 규칙, 가치나 관습 등의 연결망에 함의된 문화적 의미를 묻는다. 요컨대 개인적 아버지 상은 아버지의 행위에 관하여 개인적

1) Hanson(1975: 106)은 생태계에 내재적인 ‘생태학적 질문(ecological question)’이 제 삼의 질문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질문을 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문화적 아버지 상은 아버지의 행위에 관하여 문화적 질문을 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동일한 형태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답을 찾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당신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은 개인적 질문이요, ‘당대의 아버지는 어떤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문화적 질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같은 질문에 대하여 개인의 동기나 의도로 답하는 경우에 그 질문은 개인적 질문이 되고, 신념의 체계나 행동의 규칙 등으로 답하는 경우에 그 질문은 문화적 질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질문과 대답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적 연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Hanson, 1975: 11-12).

문화적 질문의 답으로서의 문화적 의미의 담지자는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문화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그런데 문화는 사람과 같이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다. 문화적 의미는 행위자 개인에게 물어질 수 없고 그 개인에게 물어진다고 하여도 제대로 된 대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구자가 발견해내어야 할 것으로 된다. Pleck과 Pleck의 논문(Pleck & Pleck, 1997)은 이 방면의 좋은 선행연구이다. 그들은 다양한 역사적 문헌자료를 인용하면서 시기별로 미국의 ‘이상적 아버지 상(fatherhood ideals)’을 추출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적’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여러 유형의 아버지 상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아버지된 자들이 그 아버지 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상적 아버지 상은 여전히 시대의 전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가정을 담고 있다. 연구자들은 식민지 시기의 ‘엄격한 가부장(stern patriarch)’, 1830-1900년 시기의 ‘집 떠난 부양자(distant breadwinner)’, 1900-1970년 시기의 ‘온유한 아빠(“DADS”)', 그리고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협력적 양육자(co-parent)’ 등을 이상적 아버지 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Pleck과 Pleck의 연구와 유사하게, 이 연구는 1930년대 어간부터 2010년대 어간까지 우리의 아버지 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그러나 Pleck과 Pleck의 연구와 다른 점은 접근방법, 대상지역, 연구자료이다. Pleck과 Pleck의 연구는 역사적 연구, 미국, 역사적 자료라는 특징을 가지지만, 본 연구는 문화적 연구, 식민지 조선-한국, 소설텍스트의 특징을 갖는다.

개화기로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근대의 소설텍스트를 가지고 ‘대리적(surrogate)’ 아버지 상을 탐구한 연구로 채희운(2012)의 것이 있다. 시기와 연구자료 등의 점에서 그의 연구는 본 연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차이점은 첫째로, 연구자료가 된 소설 전체의 분포시기이다. 둘째로, 연구방법 상 그는 대리부의 유형들을 먼저 확정하고 모든 근대소설에 이 틀을 적용하지만, 본 논문은 그러한 유형을 미리 상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구자의 소견을 덧붙이자면, 자녀가 가진 이상적인 아버지가 현실의 인물에 투사된 ‘대리적 부’라는 인물을 ‘부’라고 지칭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셋째, 그는 대리부의 유형들을 통하여 근대소설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지만(채희운, 2012: 197), 본 연구는 근대소설을 자료로 하여 아버지 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작품 및 인물의 선정기준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근대에 걸쳐 창작된 세 소설이 자료로 선정되었다. 그 세 소설은 염상섭의 장편소설 『삼대』(1931), 조세희의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5-1978, 이하 『난쏘공』으로 약함), 그리고 박범신의 장편소설 『소금』(2013)이다. 이 세 소설은 대략 40년 정도의 시간을 격하여 세상에 나왔는데, 각 소설이 탄생한 지점은 우리의 근현대사의 특이점을 형성한다. 『삼대』는 일제가 한반도를 병탄한 이후, 문화통치의 시기와 식민지 자본주의의 성장이 시작되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바야흐로 식민지 자본주의와 모더니즘이 개화하는 1931년 <조선일보>에 연재된다. 『난쏘공』은 분단과 전란이후의 폐허 위에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통하여 국가독점적 자본주의를 가속화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연작소설이다. 연작소설은 소설의 각 장의 발표지와 발표연도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주제, 인물, 배경 등이 일관되어 장편소설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총 12개의 장들 중에서 1975년 <문학사상>지에 상재된 ‘칼날’이 첫 발표작이고 1978년 <창작과비평>지에 상재된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가 마지막 발표작이다. 『소금』은 전반적 민주화와 개방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독주 속에서 사회가 진정성을 잃고 급속히 자본주의적 속물화로 치닫는 현재를 배경으로 하는 장편소설이다.

선정의 기준은 첫째로, 작품의 구원적 이념 제시여부가 고려되었다. 구원적 이념은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작가의 문학적 고투의 결과이다. 가령 김정현의 『아버지의 눈물』(2010)보다는 박범신의 『소금』에서 이러한 이념이 선명하다. 둘째, 상황적 맥락과 인물이 풍부하게 표현된 장편소설을 선택하였다. 아무래도 단편소설은 이점이 부족했다. 따라서 가령 김소진의 『자전거도둑』(2002)이나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2005)와 같은 단편소설집은 배제되었다. 셋째, 40년 정도의 출판 간격이라는 시대적 안배를 하였다. 『난쏘공』을 제일 처음 정하고 난 뒤 『삼대』를 선택했는데, 그 시간적 격차가 40년 정도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2010년대의 최근소설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가령 1996년에 출간된 김정현의 『아버지』 보다는 2013년에 출간된 『소금』이 40년의 시간적 안배에서 적절한 작품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출판년도와 작품의 배경이 일치하는 경우를 선정하였다. 가령 『토지』는 1969년에서 1994년에 걸쳐 집필되었는데, 작품배경은 1897년부터 1945년이기 때문에 배제되었다.

어떤 소설은 ‘시대의 문학적 지진계’(김홍중, 2009: 13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가령 村上春樹의 소설 『1Q84』(2009-2010)는 네이션-스테이트적 빅 브라더와 그 거울상으로서의 ‘선구’라는 유사종교 집단의 리틀 피플을 두 개의 달(큰 달과 작은 달)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더블’의

2) 가령 『삼대』에서 조덕기의 ‘정신적 결핍의 이념적 충족형’ 대리부로서 제시된 병화와 필순의 부(채희윤, 2012: 140)는 경의를 표할만한 친구와 어른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광기가 지배하는 세계관은 1995년 1월 17일의 고베 대지진과 같은 해 3월 20일의 동경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사건과 그에 대한 빅 브라더의 미숙한 대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는 『1Q84』에서 현대사회는 빅 브라더와는 다른 지배자, 즉 범속하고 상투적이며 무뇌아적인 리틀 피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진단과 그 리틀 피플이 악(惡)으로 현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현상하는 리틀 피플에 대항하는 힘을 두 연인(텐고와 아오마메)의 운명적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이처럼 문학적 지진계는 지진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 지진으로 인한 재앙을 극복 내지는 최소화 하려는 주체적 시도를 한다. 물론 村上春樹가 보여주는 '운명적 사랑'이 사회구조로부터 유래하는 재앙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지만 말이다. 어쨌든 문학적 지진계에 해당하는 소설이 있다면 그 소설은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시대를 넘어서는 '구원적 이념'을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의 자료로 선정된 세 소설은 문학적 지진계에 해당하는가? 이 세 소설은 대중의 욕망의 결핍을 상상적으로 충족시키는 '당의정'과 같은 작품은 아니며,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구원적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그렇다고 본다.

아버지 인물 선정의 원칙에 관해 언급한다. 선정된 세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9명씩, 총 27명이다. 『삼대』의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 필순의 부, 병화의 부, 경애의 부, 문기의 부(조창훈), 김의경의 부, 원삼이, 『난쏘공』의 김불이, 윤신애의 남편 현우, 신애의 남동생, 신애의 뒷집 남자, 앞집 남자, 한윤호의 부, 윤희의 부, 경훈과 경애의 부, 경훈의 숙부, 그리고 『소금』의 선명우, 선기철, 화자 '나'의 부, 김혜란의 부, 윤선미의 부, 김승민의 부, 선명우의 막내딸 시우의 친구들인 영인, 혜리, 서현의 부, 등이 그들이다. 연구자는 이 중에서 배경으로 기능하거나 정형화된 인물로 등장하는 아버지들을 제외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주인공격인 아버지들에 흡수될만한 인물들이다. 그렇지 않은데 제외된 인물은 『삼대』의 조덕기인데, 그를 제외한 이유는 그가 이제 경도3고에 다니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아버지보다는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분석대상의 아버지로 선정된 인물은 조의관, 조상현, 김불이, 선명우 등 네 명이다. 이 아버지들의 행위를 분석할 때 필요에 따라 나머지 아버지들도 언급될 수 있다.

III. 문화분석

선정된 세 소설에 등장하는 네 명의 아버지들의 행위들은 총체로서의 가정생활의 부분을 이루는 제도화된 행위를 한다. 연구자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아버지들의 행위(행동과 발화)를 뽑아 기록하고 분류하였다. 이 행위들을 추출하고 상위의 범주로 묶고, 이로부터 문화적 (관점)

서 본) 아버지 상을 도출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1. 1930년대: 『삼대』의 조의관과 조상훈

조의관이 하는 행위는 1) 가문의 유지와 번창의 행위들, 그리고 2) 재산상속과 타살, 두 가지이다. 1)의 행위들에는 벼슬 매입, 젊은 재취와의 혼인, 족보꾸미기, 제사절차를 주관하고 가르치기, 자잘한 훈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조의관의 외아들 조상훈이 하는 행위는 3) 사회사업(교회사업과 교육사업)과 4) 파락호(破落戶)의 행실의 두 가지이다. 이하의 기술은 편의상 1), 3), 2), 4)의 순으로 한다.

1) 조의관은 본부인과 사별한 후 며느리보다 다섯 살이나 어린 수원집을 거금 400원을 들여 (127)³⁾ 얻어 네 살짜리 딸(귀녀)을 두었다. 이 일은 염상섭의 표현에 따르면 ‘오입’(127)이지만, 관점을 달리 하면 ‘효도’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외아들 상훈이 ‘조상 봉제사를 개떡같이’(35) 아는 예수교인인데다가 이제는 아주 파락호로 전락하여 ‘금고와 사당 문지기’(449)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후계자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의관에게는 손자 덕기가 있다. 하지만 격대의 손자보다는 후취 수원집 소생의 아들이 후계자로서 더 적합하다.

그는 후사를 얻어 가문을 유지하는 일과 더불어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도 한다. 조의관은 40여세(1905년 을사보호조약 때)에 거금 400원을 들여 ‘차함(借衡)⁴⁾을 사서 벼슬을 의관에 표시하는 옥관자를 붙인 일이 있다(127). 그리고 최근에는 그의 수하동 본가 솫을대문에 ‘XX조씨 대동보소’라는 넓고 기다란 나무패가 붙는다(126). 이는 유력한 인접 가문의 족보에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족보를 거기에 이어대기 위함이다. 이 일에 족히 3, 4천원의 거금이 들었다.

노년의 나이에도 후사를 얻는 일과 가문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 더불어 조의관이 열심을 내어 하는 일은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하지만 제삿날이면 언제나 난가(亂家)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교인인 상훈이 끝끝내 제사에 참례하지 않기에 조의관의 역정이 극에 달하기 때문이다. 조의관은 “에미 애비 제사도 모르는 놈이 당장 숨을 몬다기로 눈 하나 깜짝할 터이냐? (...) 네 자식 두 너 따위를 만들 작정이냐? (...) 도덕이니 박애니 구원이니 하면서 제 자식 하나 못 가르치는 놈이 입으로만 허울 좋은 소리를 떠들면 세상이 잘될 듯싶으냐!”(47) 하면서 아들 상훈에게 역정을 내고, “내가 죽은 후에 기도를 어떤 놈이 하면 황천에 가다말고 돌아와서 그놈의 헛바닥을 뺄놈겠다.”(124)며 예수교인인 아들을 못마땅해 한다. 그래도 상훈은 으레 제삿날에는 사랑에 와 앉았다가 음복까지 끝나야 화개동 집으로 돌아간다. 제물을 올리는 시중은 조의관과 본가에 함께 사는 손자 덕기의 몫인데, 이 기회에 조의관은 손자에게 ‘어동육서니 조율이시’니 하는 제사

3) () 안의 숫자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해당 소설의 면수이다. 이하에서 동일하다.

4) 실지로 하는 일 없이 적합만 빌려 가지는 벼슬.

절차를 가르친다(124).

조 의관은 고집스럽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이나 가문의 유지와 번창에 자신의 존재의의를 둔다. 젊은 후취를 둔 것도 후사를 이어 효도를 다하는 일이고, 돈으로 벼슬을 산 것과 족보를 꾸미는 것도 가문을 빛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고(先考)의 혼령께 떳떳하다(128). 더구나 그 일에 들어간 돈은 부친의 유산이 아니라 자신이 늘린 재산의 일부였다. 돌아간 부인의 제사를 포함하여 조상의 제사도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는데, 항상 못마땅한 것은 아들 상훈이 봉제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다.

3) 조상훈은 청년시절에 봉건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젊은 지사로 나섰으나 정치적으로 길이 막힌 연유로 사회사업에 투신한다(49). 그는 2년 동안 미국생활을 하였으며, 도도한 웅변으로 설교를 하는 신사였다(90). 사람들은 그를 ‘자신심 많고 돈 많고 죽으면 목사보다도 천당에 먼저 갈 사람’으로 지목한다(96). 그가 공동의 설립자로 되어 있는 남대문의 X소학교(교회학교)에 아들 덕기도 다닌 바 있다(91). 조 의관의 말에 따르면, 학교사업에 상훈이 쾌척한 돈은 족히 ‘오륙천 원’은 된다(134). 그가 투신한 사회사업은 교회사업과 교육사업이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여 말년에 투옥되었다가 출소한 선배를 정성껏 간호하고 돕는다. 그 선배는 재산을 모두 학교에 내어놓고 소작인에게 탕감을 해 주었던 예수교인이었다(92). 상훈은 그 선배의 장례도 잘 치러주고 그의 식솔들도 성심껏 돌봐 준다.

아버지 조 의관이 ‘XX조씨 대동보소’라는 나무패를 대문에 붙이고 XX씨의 족보에 한몫 비집고 끼려는 것에 대하여, 상훈은 ‘돈을 주고 양반을 사!’(127) 하는 굴욕감이 났을 뿐 아니라, 그런데 족보를 내고나니 이번에는 XX조씨의 중시조인 OO당 할아버지의 산소가 수백 년 동안 보수가 안 되었으니 다시 치산을 하고 그 옆에 큼직한 서원 같은 것을 짓자는 논의가 일어난다(128).

제삿날 상훈은 아버지의 수족노릇을 하고 있는 재종형 창훈과 말씨름을 한다. 창훈이 “(…) 자네는 천주학을 하니까 이런 일에는 반대인지 모르지만 조상 없이 우리 손이 어떻게 퍼졌으며 조상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 하는 말에 상훈은 “조가의 집이 번창하려고? (….) 하지만 꾸어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부터 돕는답디다……”(131) 하고 되받아 친다. 이 말을 사랑방 밖에서 들은 조 의관은 방 안으로 들어와 아들 상훈에게 격한 어조로 야단을 친다. “조상을 꾸어왔다니 너는 네 아비도 꾸어왔겠구나? 꾸어 온 아비면야 조금도 네게는 도울 게 없을 게다! 다시는 내 눈 앞에 뜨일 생각도 마라!”(132) 하지만 상훈은 예수교의 수양 덕인지, 가냘프고 신경질적인 체구에 비하여 부드러운 목소리와 급히 죄어치지 않는 어조를 가지고 대꾸한다(64).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좀 ‘유리하게’ 쓰시기를 권한다. 유리한 일이란 것은 ‘교육사업, 도서관사업, 조선어사전 편찬’(135) 등이다.

아들이 말하는 여러 사회사업은 아버지의 가문의 보존과 번성에 비하여 국량은 큰 것이지만,

아들에게는 돈이 없다. 봉제사를 신봉하고 예수교를 극력 배척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쥐는 것이다. 쇠락해가는 유교적 전통은 아직 경제적 힘이 있지만, 외래에서 도입된 예수교적 반전통은 경제적 힘을 가져보기도 전에 타락하고 만다.

2) 제사 다음 날, 조의관은 땀물에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를 다친다(139). 감기까지 걸린 조의관은 한약보다는 양약을 선호한다(203). 그의 강박관념으로는 자식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데, 한약은 달여서 내을 때까지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허리 때문에 사랑에만 누워있던 조의관은 재취 수원집의 간호를 받기 위해서 안방으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허리는 다시 아파지고 감기기운은 폐렴으로 진전한다(354). 양의에 더하여 한의도 조의관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동원되나, 그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된다(405). 조의관은 일본으로 돌아 간 손자 덕기에게 전보를 보내라 지시한다. 조카 창훈에게 명한 것이었지만, 괴이하게도 세 번이나 보낸 전보는 덕기에게 당도하지 않는다. 덕기는 여동생 덕희가 따로 친 전보를 받고는 급거 귀국한다. 한 달 사이에 조의관은 ‘누렇게 뜨고 꺼먼 진이 더께로 앉은’데다가 ‘멀정게 누런 빛이 살 속으로 점점 처져 들어가는 것’이 여러 해 앓은 사람 같이 된다(411).

조의관은 급히 초치한 덕기에게 ‘금고 열쇠’를 전달한다(422). ‘아빌(아버지 조상훈)’이 있는데 자신이 금고 열쇠를 맡기가 어렵다는 손자의 고사에 할아버지 조의관은 말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의 가운이 달렸다. 너는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네게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열쇠, 두 가지 뿐이다.” 요컨대 조의관은 손자에게 ‘금고와 사당의 문지기’(449)가 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사랑에 놓인 금고 속에는 도장, 통장, 그리고 재산분배에 관한 조의관의 유언장 등이 들어 있다(445). 이 금고 열쇠를 포함한 열쇠몽치는 조의관 머리맡의 조그만 손금고 안에 들어 있고 이 손금고의 열쇠는 덕기가 소지하고 다니게 된다. 조의관은 자신이 병석에서 ‘천행으로’ 다시 일어나거든 금고 열쇠를 돌려달라고 손자에게 말하지만(422), 그는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타계한다(463).

병원 주치의와 박사는 조의관이 ‘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다(462). 임종 전에 이미 조의관은 영양소를 전혀 흡수하지 못하였고 혈관은 판판히 굳어졌다. 조의관이 복용하던 한약의 찌꺼기가 남김없이 사라진 이상, 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시신을 부검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결국 부검은 시행되지 않는다. 정황으로 보건대, 노인의 한약에 비소를 섞은 이들은 수원집, 최참봉, 조창훈, 어멈 등이다. 조의관에게 수원집을 천거하고, 어멈을 새로 들였으며, 창훈을 끌어들이는 이가 ‘늙은 오입쟁이’ 최참봉이다(366-367). 이들 뒤에는 ‘남의 등쳐먹기로 생화를 삼는’(459) 술집 여주인 매당이 있다. 덕기는 ‘돈동록 냄새가 욕기의 입김에 서려서 쉬고 썩고 하여 나오는 음산한 공기’(416) 속에서 이들이 작당하여 조의관을 살해하였으리라는 심증을 갖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살해에 얼마나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알 수 없어 망설이는 사이에 장례가 치러진다. 조의관은 그렇게 갔지만, 죽기 전 병중에 쓴 유언장을 통하여 나름 공

정하게 재산분배를 해 놓았다. 손자 조덕기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하고 예수교인인 아들 조상훈에게는 보잘 것 없는 유산을 상속한 것도, ‘영감의 봉건사상이 마지막으로 승리의 개가를’(448) 부르기 위한 불편부당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에서 나온 나름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

4) 봉건적 제도와 사상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조상훈은 예수교인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조의관이 돈을 주고 벼슬을 사는 일 등은 그에게는 경멸할만한 봉건적 적폐이다. 그는 자식만이 가질 수 있는 심정으로 모욕감을 표출한다(127). 그는 제사 때마다 아버지의 꾸지람과 역정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제사에 참례하지 않는다. 게다가 조상훈은 개인적 축재에는 관심이 없는 반면, 돈을 쓰는 교육사업과 교회사업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예수교를 맹비난하는 봉건적 아버지이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에게는 정치적인 출세 길도 막혀 있고(49), 부자간의 불화로 인하여 점차 돈줄도 말라가는 터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돕던 선배의 어린 딸 홍경애와 정분이 나는 일이 벌어진다(116-119). 예수교인으로서 그는 홍경애를 첩으로 들일 수도 없었고, 교인들의 평판을 중시해 본처와 이혼을 하고 재혼할 수도 없었다.

부친 조의관의 눈 밖에 났기 때문에 조상훈은 아들 덕기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위치로 전락한다. 애비된 위엄으로 아들에게 “술 마시고 다니지 마라.”고 훈계를 해보기도 하지만, 아들은 이미 아버지가 혼외로 낳은 딸 정례(382)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충고조로 조언을 한다(161). 그는 부인과도 등을 돌리고 사는데, 이는 부인이 경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다(166). 집 안에서 위엄이 서지 않는 그는 분가한 화개동 사랑채에 모인 축들과 마작을 하고 청요리에 배갈을 시켜 마시며 어울린다(172-173). 아들 덕기의 친구 김병화와 함께 홍경애가 일하는 ‘바커스’라는 술집에 갔을 때, 상훈은 다른 청년 일행들과 싸움을 벌이고 파출소에 끌려가기도 한다(196).

그는 ‘젊은 계집의 도가(都家)’ 매당집을 드나들던 중에 신교육을 받은 젊은 유치원 보모 김의경과 또 다시 정분이 난다(309, 341). 그는 의경이 매당집 같은 술집에서 만난 계집으로서 살림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매달 주는 30원의 용돈도 아깝고 하여(261-262), 홍경애에게 다시 접근한다. 하지만 홍경애가 병화와 ‘산해진 식료품상’(473)을 시작한 후, 아예 김의경을 화개동 사랑방에 데리고 와서 살림을 차린다(556). 김의경은 상훈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다(559).

조의관이 죽은 후, 부인과 딸 덕희도 수하동 분가로 가 버리고 일꾼 원삼이도 나가 버린 화개동 집에서는, 매당과 최참봉과 창훈의 주선으로 의경을 위한 새 세간이 분주하게 차려지고 있다. 한때 남의 눈을 꺼리고 소문을 무서워하던 위선자이기는 하되 상식인이었던 상훈은 이제 후안무치의 파락호로 전락한 것이다. 급기야 상훈은 아들 덕기가 병화의 일에 연루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사이에 가짜 형사를 보내어 금고를 탈취하는 ‘낮 도둑놈’(636)의 만행을 자행하기에 이른다. 돌아간 부친의 유서를 위조하려는 목적이다.

2. 1970년대: 『난쏘공』의 김불이

김불이가 하는 행위는 1) 돈벌이, 2) 훈육과 교육, 3) 이상사회 꿈꾸기, 4) 자살 등 네 가지이다.

1) 그는 가족의 '생존비'(210)를 벌기 위해 일을 한다. '생활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비'이다. 그가 돈벌이를 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자녀들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지만, 그가 벌어들인 생존비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그가 살던 방죽가의 빈민촌 아이들은 굶주림에 흠을 먹기도 하는데(239), 그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니다. 장남 영수는 중3 초에 학교를 그만두며(95), 차남 영호와 막내 딸 영희도 중학교에 못가고 학교를 그만두고 만다(96).

김불이가 평생 한 일은 채권 매매, 칼 갈기, 고층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 등(95) 다섯 가지였다. 최근에 그가 하던 수도 고치는 일도 이제는 하기 어렵다. 그가 가진 단독 기능은 동네에 가게를 벌인 '펌프집 사나이'(54) 일당에게 넘어간다. 신애가 칼을 들고 그 사나이에 벌레처럼 구타당하는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면(50), 그는 병신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는 호구지책으로 약장수의 서커스 단을 쫓아다닐 생각을 한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에 부딪힌다(95). 아버지는 큰 아들을 배에 태우고 방죽 가운데로 간다. "난 죽기로 결심했다." 이 배수진의 발언은 그가 식구들에게 짐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결국 그는 행복동의 집이 철거된 직후 행방불명되고 만다. 나중에 알려지지만 그는 벽돌공장의 높은 굴뚝에서 추락사했던 것이다.

이후 남은 가족들은 은강 시로 이사한다. 은강 시에 있는 인쇄공장, 방직공장, 자동차 공장 등에서 김불이의 자녀 셋이 일하고 번 돈은 모두 80,231원이다. 네 명의 가족을 둔 그해 도시근로자의 최저 이윤 생계비는 83,480원이었다(210).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생존비는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서커스 단 일을 구상하던 김불이는 왜 죽은 것인가? 과연 그는 실족사 했는가? 그는 달밤에 벽돌공장의 높은 굴뚝 맨 꼭대기에서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민 채 종이 비행기를 날리곤 했는데(103), 실족사라면 굴뚝 밖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애의 전언에 따르면, 김불이의 시신은 벽돌공장이 철거되면서 굴뚝 안쪽에서 발견되었다(143). 따라서 그는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김불이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훈육과 교육을 시행한다. 그는 사회의 규범과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식들에게도 이를 훈육한다.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놀린 집의 창문을 깬 영수에게 아버지는 외출금지의 벌을 내린다(232). 아버지는 그 집에 가서 사과도 하고 변상도 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집이 철거될 것에 분노하는 영호에게 "그들 옆엔 법이 있다."고 말하며(84), 철거 집행관과 인부들에게 얻어맞는 지섭을 아들들이 도우려고 할 때 만류한다(125). 아버지의 훈육에는 자녀의 안락한 삶을 위한 처세가 있다. 다른 공원들이 배신을 하고 오직 아들들만이 사주 측에 항의를 하려다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너희들도 잘 했고, 그 아이들도 잘 했

다.”(116)는 칭찬도 비난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아들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속이 상한 아버지는 술을 마신다.

법대를 다니다 제적된 후 윤호의 가정교사를 하던 지섭으로부터 김불이는 살아있는 지식을 배웠고, 아들에게 훈육을 넘어서는 자신의 교육관을 말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생태계 먹이 피라미드에 관한 학교 숙제를 하는 아들에게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한다(198-199). 영수와 영호는 나름의 대답을 한다. 영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대답을 하는데, 형보다 어린 영호는 그것을 사회에 적용하여 대답한다. 아버지는 어느 대답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영수와 입씨름을 하는 도중에, “넌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121)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장남 영수의 대답을 ‘죽은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죽은 교육과 살아있는 교육의 차이는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지식과 현실을 보는 안목을 제공하는 지식, 또는 시험이나 출세의 도구로 복무하는 지식과 이념이나 자유를 주는 지식의 차이에서 온다.

3) 김불이는 지섭이 빌어 준 『일 만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읽는다(82, 102). 그 책은 달나라에서의 생활, 특히 달에 세워질 천문대에서 일 할 사람의 행복을 묘사하고 있다. 달은 순수한 세계이며 황금색 별세계이다. 그에 반하여 지구에서의 생활은 너무도 끔찍하다. 여기서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약속과 맹세는 깨어지며,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눈물도 보람 없이 흘러야 하고, 마음은 억눌리고 희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섭과 김불이는 달나라의 세계를 실제의 세계로 믿는 듯하다. 소설에 등장하는 피비우스의 띠와 클라인 씨 병은 달의 순수한 세계와 지구의 끔찍한 세계가 존재론적으로 안팎을 나눌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수한 세계는 이 끔찍한 세계에 내재적이며, 달나라로 표상되는 이상사회는 유토피아와 같은 규제적 이념으로 기능한다.

김불이는 영수에게 “살기 힘들어서 달에 가 망원렌즈를 지키는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120)고 말한다. 영수는 새것이라고는 없는 집에서 자식들을 잘 먹일 수도 없었고,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를 ‘불쌍한 아버지’(212)로 기억한다. 하지만 만일 아버지의 꿈이 비참한 세계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내부와 무관한 외부) 현실에 불박여 있는 이념이라면(내부와 통하는 외부) 어떨까. 그가 꿈꾼 이상사회의 모습은 이러하다.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213). 그곳에서는 지나친 부의 축적은 사랑의 상실로 공인된다.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집에 내리는 햇빛은 가려지고, 바람도 막히고, 전깃줄도 잘리며, 수도선도 끊긴다. 그런 집 뜰에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날아 들어갈 별도 없다. 한 마디로 김불이가 꿈꾼 세상에서는 사랑이 강요된다.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달과 지구는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공간적으로 비유하고

5) 행복동 철거민촌이나 은강 시만 끔찍한 세계는 아니다. 윤호의 아버지인 율사의 가정, 또는 재벌 총수 아버지를 둔 경훈의 가정도, 다른 의미에서, 끔찍하다.

있지만, 김불이가 그리는 이상사회는 왜곡된 현실사회의 이면에 불과하다.

4) 김불이는 달밤에 벽돌공장의 높은 굴뚝에 올라가 맨 꼭대기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곤 했다(103). 그는 달에 가기 위해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의 관리인 로스 씨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고 한다(120). 답장은 지섭에게로 오기로 되어 있다. 그는 로스 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지섭에게 연락해서 자녀들에게 달나라로 가는 로켓, 즉 현실의 중력에 반하는 희망의 ‘쇠공’을 쏘아 올려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종이비행기는 지섭에게 보내는 그의 간절한 연락이었을 것이다. 거짓말처럼 지섭이 한 손에 쇠고기를 들고 나타난다. 김불이의 집이 철거되기 직전이다.

김불이는 실족사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다. 그는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253), 식구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251) “죽기로 결심했다.”(250)고 영수에게 말한다. 그는 신에 집의 수도공사를 해주다가 벌레처럼 얻어맞은 적이 있고 스스로도 “나는 벌레야.”(252)라고 말한다. 이 가장은 식구들을 부양하기는커녕 그 식구들에게 짐으로 전락하여 자살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는 자살한 아버지를 둔 자식이 겪을 타인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실족사를 가장한 자살을 한다.

김불이는 타살당했다고 볼 수도 있다. 영수는 영호가 ‘타살 당한 아버지’라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196). 그렇다면 과연 그를 자살로 몰아넣어 죽인 자는 누구인가? 『사회가 자살시킨 사람 반 고흐』에서 Artaud는 고흐가 정신과의사 가세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Artaud, 1974/2003: 47). 더불어 그의 자살엔 동생 테오도 일조했다(Artaud, 1974/2003: 52). 김불이는 사회적 조건 하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절망하여 자살했다는 점에서 사회가 그를 자살시킨 것이다. ‘아버지의 시대가 아버지를 고문했다’(201). 하지만 사회는 구체적 인격체를 통하여 힘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인격체는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가 희망을 품은 새 일거리를 극구 반대한 사람은 가족들, 특히 장남 영수이다. 게다가 영수는 아버지의 희망이었다.

김불이는 장남 영수가 공부를 잘 하고 총명하여 다른 자식보다 그를 자랑스러워했다(315). 그리고 수시로 영수가 집 안의 기둥임을 강조했다(197). 그런데 영수는 노동운동에 깊숙이 관여하여 변변한 직장을 얻기 힘들게 되어간다. 급기야 영수는 은강그룹의 총수(사실은 총수의 남동생)를 칼로 살해하고 법정에서 서며 결국에는 사형을 당한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장남 영수가 가정을 책임지게 되면 후에 올 이러한 비극은 막아질까, 하는 생각을 생전의 아버지는 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꾸는 끔찍한 꿈은 영수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인데, 이 예지몽을 아버지 김불이가 몰랐을 리 없다. 그래서 감행된 아버지의 행위가 자살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살도 영수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아들 또한 사회가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사람이다. 그가 아니었다면, 성격이 더 불같은 차남 영호가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난장이 일가는 아버지가 장남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하고, 형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랑으로 뭉쳤지만 결말은 암울한

비극적 가정이다.

3. 2010년대: 『소금』의 선명우

선명우가 하는 행위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돈벌이, 2) 가출, 3) 유랑과 정착.

1) 선명우는 자본주의적 소비의 수렁에 빠진 가족을 위해 돈벌이를 한다. 그는 28세(1979년)에 첫 딸을 얻어 아버지가 된 이후로, 53세(2004년)에 가출을 하기 전까지, 25년 동안 ‘충직한 시중’(36)같은 아버지로 복무했다. ‘전망 부재의 가난뱅이 남자’(90)였던 그는 29세에 큰 처남의 도움으로 재벌그룹의 어느 자회사에 취직한다. 생존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은 돈뿐이라고 생각하던 그는, 마침 아랍권에서 오일달러에 의한 건설열풍이 불자 뒷돈을 써 가며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사원으로 갈 기회를 잡는다. 그는 5년 동안 사우디에서 ‘악명 높게 열심히, 남보다 두 배로 일했’고, 심지어 칼에 찔린 일도 있었다(293). 폐결핵에 걸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어색한 가족관계와 부채였다. 초등학교생인 큰 딸과 유치원생인 둘째 딸 성우와 달리, 어린 막내 딸 시우(詩友)만이 그에게 안겨왔다. 대구의 부유한 집안 출신인 아내 김혜란은 ‘자본의 단맛을 평생 버리지 못하는 환자’(322)였다. 사우디에서 부쳐준 돈이 적지 않았으나 아내의 지나친 소비로 인하여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였다. 그는 모 음료회사에 재취업하여 이후 상무로 승진할 때까지 20년을 걸긴 한 번 없이 직장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의 소득으로는 가족의 소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아내와 딸들은 ‘짜구려는 뭐든지 신뢰하지 않았’(97)고, 여행은 ‘품격 있는 소비’(250)로 즐겼으며, 방이 6개나 되는 고급빌라에 살면서도 새로운 별장을 갖고 싶어 했다(208). 그는 자신이 사는 최고급 빌라가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의 시체 위에 지어졌다는 상상을 한다(140). 가끔 그는 “뭔가 잘못됐어!”라는 혼잣말을 하기도 한다(97).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그는 극빈자처럼 자장면과 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했으며, 부랑자처럼 거처처에 리베이트나 밑돈을 요구하기도 했다(323). 그는 아내에게 가정사의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그림자’나 ‘유령’ 같은 청지기로 살았다(36). 그의 가정이 이처럼 모권적으로 된 데에는 그의 양혼도 한몫했지만, 그가 첫사랑 세희 누나를 잊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약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선명우는 53세의 늦은 나이에 가출을 한다. 그가 가출한 날은 하필 막내 딸 시우가 고등학교의 학업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에 맞은 19번째 생일날이다. 눈이 오고 추운 날이었다. 선명우는 딸의 생일선물로 자동차메라를 큰 길 거의 카메라가게에 미리 주문해 놓았으나, 집 앞에 거의 당도하여 선물을 깜박 잊고 온 것을 깨닫는다. 가족의 뒷바라지에 용의주도했던 그가 특별히 귀애하던 막내딸의 선물조차 잊은 것은 최근에 채장암 진단을 받은 때문이다(142). 몸무게가 5킬로그램이나 줄고 신열이 나서 정신이 혼미한 때가 최근에 많았지만, 가족 누구도 그의

병세를 알지 못했다.

시우의 카메라를 찾으러 집 근처에서 발길을 돌려가다가 그는 눈길에 미끌어진 봉고트럭과 조우한다. 트럭을 밀어달라는 ‘키 작은 남자’(김승민)의 청을 외면하려는 순간, 선명우는 그 트럭에 적재된 소금을 발견하고 강렬한 통증을 느낀다. 소금은 선명우의 아버지가 말년에 5남매를 키우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생산물이자,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한 장소의 소출물이다. 아버지와 형제의 희생 위에서 대학까지 다녔지만, 28세 때의 그는 아버지가 염부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314).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대학졸업식에 오지 못하게 설득하려고 서천의 염전까지 내려갔다가 아버지가 염전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냥 돌아온다. 선명우는 다음 날 아버지의 부고전보를 받는다. 아버지를 수치스러워했다는 자책감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던 죄의식은 선명우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였다. 그 일이 있는 25년 후, 봉고트럭에 실린 소금을 보고 그가 느낀 통증은 철저히 망각된 과거의 회귀로 인한 것이다.

취장암 진단과 고통스러운 과거의 회귀가 그를 가출로 이끈 결정적 원인일까? 그는 가족에게 병세를 알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선기철이 염전 일을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자 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봉고트럭에 실린 소금을 본 순간에 선명우가 자책감과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는 구 가족을 끝까지 돌보는 쪽으로 행동하기 쉬웠을 것이다. 선명우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에게 기생하여 성장했듯이, 선명우의 가족들은 아버지로서의 자신에게 ‘빨대’를 꽂고 살아왔으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명우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무엇이 구 가족과의 결별을 촉발했는가?

그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서로 길항하는 두 가지 단 맛이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적 소비의 단맛’이고, 다른 하나는 ‘참된 자유의 해방감의 단맛’이다(254). 이 후자의 단맛을 보여주는 사례가 시와 노래이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주어지는 이 후자의 단맛에 푹 빠졌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시를 좋아했으며 석류를 사랑했는데, “발레리라는 시인이 석류의 알을 두고 지상의 이미지를 본 것 같다고 썼구나!”라고 어린 그에게 말했다(182). 어머니의 귀밑머리는 배롱나무의 꽃처럼 예뻐하며(162), 어머니에게서는 향긋하고 감미로우며 혼곤하기까지 한 풀 냄새가 났다(176). 어머니에 대한 감각적 애정은 시인정신과 결합된다. 그는 시를 읽어주고 별자리를 가리켜주었던(163), 폐병에 걸린 작은 형을 좋아 했다. 그는 대학 시절에 노래하는 가인과 시인을 꿈꾸었다(122). 자유로운 시인정신은 후에 그로 하여금 ‘생산성’이라는 자본주의의 모토를 증오하게 만든다(283). 취장암 진단 이후의 혼곤한 신체와 소금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과거의 회귀보다도 그의 가출을 부추긴 본질적 사건은 결국 자본주의적 소비를 그토록 혐오하게 만든 시인정신이다.

눈 오던 그날 저녁, 선명우가 소금을 보고 통증을 느끼던 그 순간, 봉고트릭의 기사(김승민)는 자신의 차에 떠밀려 난간 밑으로 추락한다. 선명우는 김승민의 비명을 아버지가 염전에 쓰러져 돌아가실 때 지른 비명으로 느낀다. 이 사고로 김승민은 전신마비환자가 되는데, 선명우는 그의 보호자이자 간병인을 자처하여 병원비를 대고 그가 죽을 때까지 먹이고 씻기며 돌본다.

3) 선명우는 ‘김승민’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 전신마비가 된 김승민은 선명우의 처남으로 둔갑한다. 김승민은 부인 윤선미(226)와 그녀가 인천의 공중변소에서 주워 온 딸 신애를 데리고 다녔다. 나중에 강경 옥녀봉에 정착한 후 채운산 기슭에서 주워 온 막내 지애를 더하여 모두 5식구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된다. 윤선미는 10대 초반에 아버지의 폭행으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절름발이가 된 여인으로(241), 15세에 가출하여 떠돌다가 우연히 김승민을 만나 살아왔다. 딸 신애를 빌미로 김승민은 윤선미를 “병신”이라 부르며 두들겨 패고 밥까지 굶겼다(227). 14살이 된 큰딸 신애는 구루병을 앓아 유치원생처럼 작은 키를 가졌다. 7살의 작은 딸 지애는 시력이 무척 나빠 ‘안경 소녀’로 불린다(66).

가출 후에, 그리고 첫사랑 세희 누나가 죽기 전에 반년 정도 살았던 강경 옥녀봉의 집을 세내어 정착하기 전에, 선명우는 유랑생활을 한다(224). 축제를 따라 전국을 주유하면서 잉여재산의 축적 없이 최소의 생계를 유지한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유로운 삶은 선명우에게 신체적 건강을 가져다주었다. 유랑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해졌던 것을 보면 체장암은 오진이었을 것이다. 이 유랑은 신체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죽은 아버지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주었으며, 옛 가족 대신 새 가족을 만들어주었다.

선명우는 ‘이상한 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주말에 옥녀봉에서 그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한대수나 송창식의 노래나 민요를 부르고 자작곡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는 애들과 나들이를 하며, 옥녀봉 일대를 청소하고 천변에 물푸레나무 길을 가꾼다(286). 또한 세희 누나와의 추억이 깃든 도라지를 심어 가꾸고(304), 일 년에 몇 번씩 누나의 할머니 무덤을 돌보는 일도 한다(289). 주중에는 과거 아버지가 염부로 일하던 서천의 염전에서 생산량은 적고 노동력은 더 드는, 한 마디로 생산성이 미미한 ‘토판염’을 생산한다(282). 토판염에는 아버지의 육체성과 어머니의 정신성이 혼합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소비의 수렁에 빠진 구 가족의 아버지 선명우와 자연주의적 자유의 해방감을 누리려는 신 가족의 아버지 ‘김승민’은 가출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양태를 보인다. 과거에 아버지의 역할은 잉여재산을 표시하는 ‘통장’의 책임자이자 가족의 ‘시종’이었다. 그가 아버지의 희생에 기대어 성장했듯이, 이제 아버지가 된 그 자신도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운명으로 보인다. 이리 보면 아버지가 가출해야 할 현실적이고 필연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 뒤에서 거대한 자본주의의 ‘빨대’를 발견하고, 그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시인정신에 입각한 토판염의 생산을 발견하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 가출 이

후의 그의 역할은, 생산성의 폭압적 가치가 지배하는 소비욕망과 자본축적의 폐쇄회로를 탈출하여, 자연주의적 정성의 결집체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금'의 생산자, 자녀들에게 생산성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아버지의 그것으로 된다.

4. 분석결과와 해석

세 편의 소설로부터 연구자는 1930년, 1970년, 그리고 2010년 어간을 살아간 아버지들의 행위를 제시하였다. 조의관의 행위들은 가문의 유지와 번창 그리고 재산상속과 타살로, 조상현의 행위들은 사회사업과 파락호의 행실들로 집약된다. 김불이가 하는 행위들은 돈벌이, 훈육과 교육, 이상사회 꿈꾸기 그리고 자살로, 선명우가 하는 행위들은 돈벌이, 가출 그리고 유랑과 정착으로 집약된다. 이 아버지들의 행위들로부터 '문화적 관점에서 본 아버지 상'이 제시될 수 있다. 조의관은 가문의 유지와 번창을 위해 살다가 재산을 손자에게 성공적으로 상속하고 비소중독으로 살해당하는 전통적 아버지 상을, 그의 아들 조상훈은 사회사업에 뜻을 둔 기독교적 지사에서 주색잡기를 탐하며 타락해가는 파락호적 아버지 상을, 김불이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상사회를 꿈꾸다가 가족의 생존조차 마련해주지 못하는 현실사회의 장벽에 막혀 자살을 하고 마는 소시민적 아버지 상을, 그리고 선명우는 자본주의적 소비의 수렁에 빠진 구 가족으로부터 가출하여 서로 혈연관계가 없는 신 가족의 가장이 되는 예술가적 아버지 상을 보여준다.

조의관은 가정생활의 중심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가부장적 권력의 기반은 그의 '재력'에서 나온다. 그는 적지 않은 유산을 받기는 했지만 그 유산을 더욱 불린 성공한 재산가이다. 한편 그의 가부장적 권위는 유교적 '전통'에서 나온다.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하던 조선은 사라졌지만 과거의 풍속과 관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 전통의 명분으로 아들 조상훈이 도입한 외래적 예수교를 배척하며, 제사 때 손자에게 예법을 직접 가르친다. 조의관은 자신의 재산을 가문을 드높이고 후사를 도모하는 전통적 이념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가치의 수단성을 자각하고 있다. 조의관은 '금고지기'(재력)와 '사당지기'(이념)를 손자에게 모두 전하려 했지만, 후자는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다. 김병화와 같은 친구와 어울리던 덕기는 전통과 반전통에서 떨어져 가면서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경사된다.

조상훈은 재력을 상속받지 못하며, 그에 따라 아버지로서의 권력을 잃는다. 그의 이념은 반전통의 예수교이다. 외래가 전통과 길항하던 구한말의 상황에서 상훈은 기독교를 전통의 대안으로 택했다. 일문의 영달과 안위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사업을 경영하던 상훈의 뜻은 일문의 번영만을 꾀하던 아버지 조의관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의 물질적 기반은 스스로 일군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만일 그가 전통적 아버지 조의관과 제례 문제에서 부딪히지 않고, 식민지 지식인의 정치적 좌절에서 오는 폐색된 열정을 젊음

여인에게 돌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여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권력과 권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조의관으로부터 격대의 후계자로 간택된 아들 덕기에게조차 돈 때문에 눈치를 보는 지경에 이르며, 아들 덕기로부터 연민을 받고 충고를 듣는 입장에 처한다.

김불이는 소시민의 가장이다. 일거리도 떨어져 가고 돈벌이도 변변치 않은 그에게도 가부장의 권력이랄 것이 있었을까? 행복동 집을 자신의 손으로 지을 당시, 아직 자녀들도 어렸고 그에게도 권력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자녀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학교교육도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가부장의 권력을 잃어간다. 그는 ‘산업 사회의 부스러기 업종 내지 전기 자본주의 사회의 부랑 근로 업종’(김병익, 1978: 333)에 종사한다. 이에 비하면 그의 세 자녀는 인쇄공장, 방직공장, 자동차공장 등 집단 근로 직종에 근무한다. ‘난장이 김불이(金不伊)’⁶⁾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도태되어 가는 일군의 소시민에 대한 비유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가부장의 권위는 있다. 우선,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수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놀리는 아이의 집 유리창을 깨었을 때 엄하게 외출금지를 명할 정도로 강한 훈육자이다. 『일 만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열심히 탐독하듯이 그는 배움을 좋아하였다. 그는 후에 노동운동가가 된 지섭의 영향으로 공상적 사회주의를 배운다. 그에게 공상적 사회주의는 지적 유희가 아니었다. 노동과 학습의 결합은 동화적 이상향에 현실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가 꿈꾼 순수한 달세계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상사회는 하나였다. 여기에 노동을 통해 습득한 현실감이 그로 하여금 공허한 학교지식을 ‘죽은 교육’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김불이가 지닌 가부장의 권력은 작았지만, 가부장의 권위는 컸다. 그는 비록 사회에서 ‘난장이’나 ‘벌레’로 천대받았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대접받았다.

선명우는 구 가족에서는 가지지 못한 가부장권을 신 가족 속에서 되찾는다. 구 가족에게 그는 ‘시중’과 ‘그림자’에 불과하여 아버지로서의 권력과 권위를 모두 가질 수 없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바쳤으나 그의 벌이는 구 가족의 과도한 소비욕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그는 ‘통장’의 권력을 갖지 못하였다. 염부였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극적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시적 감수성을 가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세희 누나와의 수치스러운 결별 때문에 억압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서 나오는 권위도 갖지 못했다.

가출 이후에 그는 신 가족의 중심에 선다. 모든 가족은 그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 사고 후에 전신마비가 된 김승민은 그로부터 극진한 돌봄을 받는다. 다리를 절고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윤선미는 평생의 가정폭력에서 해방되어 행복을 찾는다. 윤선미가 주워 길러 온 난쟁이 딸 지애는 꽃, 나무, 새 이름을 많이 알며 집안일도 잘 거든다. 채운산 기슭에서 그가 주워 온 안경잡이

6) 김불이의 ‘이(伊)’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저 사람 이’ 자이다. ‘불이’는 소시민을 뜻한다.

막내 딸 신애는 논산으로 북을 배우러 다닌다. 그가 가꾼 강경의 옥녀봉 집에서는 정갈하고 화사한 생명의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그는 정성의 결정체로서의 '선기철 소금'(토관염)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생산성이나 수익과는 거리가 없지만, 잉여의 축적을 혐오하는 그는 많은 돈을 벌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자본주의에 속박되어 살지 않으며, 자연의 생명력에 기대어 자유롭게 산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자연적 삶과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는 자유로운 삶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IV. 결론

주인공 아버지 4인은 근대적 아버지 상의 공통성과 더불어, 40년여를 격하여 시기별 차별성도 가지고 있다. 각 시기별 아버지 상의 특수한 문화적 기능과 의미는 부권의 변천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부권은 재력이라는 물질적 원천과 이념이라는 정신적 원천에서 온다. 재력은 아버지에게 권력을 주고 이념은 아버지에게 권위를 준다. 세 소설은 부권이 객체적이고 상대적인 재력보다는 주체적이고 절대적인 이념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 세 소설에서 아버지들이 보이는 이념들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자본주의와 근대국가를 전제하는 '훈육적 이념'인가, 아니면 이를 넘어서려는 '구원적 이념'인가의 차이와, 둘째로 자녀에게 그 이념이 전수되지 않는가 전수되는가의 차이이다. 조의관과 조상훈은 전자의 경우이고, 김불이와 가출 후의 선명우는 후자의 경우이다.

재력이 조의관은 이미 몰락한 조선의 이념을, 지사 조상훈은 무력한 외래의 종교적 이념을 붙들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점차 훈육적인 성격조차 상실한다. 조의관과 조상훈 그 누구도 덕기에게 자신의 이념적 권위의 동의를 창출하지 못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념과는 단절적으로 조덕기는 민족의 독립을 이룰 구원적 이념을 친구나 선배로부터 배운다. 개발 독재 시대의 빈민가장 김불이는, 훈육적 이념에 있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만, 구원적 이념에서는 단호하며 장남 영수에게 이를 전해준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영수는 결국 '사랑-없음'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아버지의 이념이 옳았음을 깨닫는다(조세희, 1975-1978/2000: 213, 234). 김불이의 구원적 이념의 권위는 극한의 빈곤과 비극적 가족사에도 불구하고 지켜진다. 아마 남아있는 영호와 영희에게 이어질 것이다. 선명우는 구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돈벌이를 할 때에는 부권을 상실하였다가, 돈벌이보다 자연적 생태주의와 자유로운 시인정신의 이념을 선택하자 부권을 회복한다. 선명우의 부권은 돈벌이보다는 그의 구원적 이념에 더 크게 의존한다. 이상과 같이 세 소설에 근거하여 부권의 추이를 볼 때, 근대의 각 시기를 거치면서 구원적 이념에 터한 부권이 오히려 회복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각 아버지들이 행한 결정적 행위들, 즉 조의관의 타살, 조상훈의 타락, 김불이의 자살, 그리고 선명우의 가출을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조의관이 타살당한 것은 말 그대로 피동적이다. 그의 타살은 식민지 시대의 전통의 운명과 유사하다. 조상훈의 타락은 수동적이다. 설혹 주체적 능동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파렴치하고 비굴한 것에 불과하다. 김불이의 자살은 사회로부터 강요된 측면이 있지만, 그의 주체적 능동성이 더 많이 발휘된다. 선명우의 가출은 우연과도 같은 사건의 배치가 원인이 되어 현행화된다. 그러한 상황적 맥락이 그를 가출이라는 사건으로 이끈 것이지, 선명우 자신이 적극적으로 가출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가출은 수동적이다. 하지만 가출 이후에 그는 매우 능동적으로 삶을 끌어가고 있다. 이 후반기 삶의 이념적 기반이 염부 아버지의 노동과 극적 죽음, 그리고 어머니의 시인정신과 향기라고 할 때, 가출에는 어린 시절부터 훈자된 이러한 요소가 핵심원인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 그의 가출 후의 자신감과 비전은 우연히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은폐되었던 것이 풀려나온 결과이다. 근대적 아버지 상은 이렇게 점차 능동적이고 자신감이 있게 바뀌고 있다.

근대적 아버지 상이 주체적 능동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부권의 기반에 점차 강화되는 구원적 이념이 있다는 해석은 현재의 가정교육에 어떠한 시사를 주는가? 가정생활의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에게는 물질적 지원 능력이 중요하지만, 훈육자와 교육자로서의 아버지에게는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김영철, 2015).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기존의 산업자본과 근대국가의 질서에 머물러 있을 때, 아버지는 훈육자에 머물게 된다. 반면에 이 이념이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는 구원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는 교육적 존재가 된다. 달리 말하여 교육을 배제한 훈육의 이념적 권위는 구원적이지 않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느 정도는 물질적 지원 능력에 기반을 두지만, 필연적으로 물질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념으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권위는 훈육적 이념보다는 구원적 이념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구원적 이념은 훈육적 이념보다 더 큰 진정성을 갖기 때문이다. 만일 가정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자녀 키우기에서 구원적 이념을 핵으로 하는 '교육'을 제외시키고 '양육과 훈육'만을 남긴다면, 우리는 그 일의 넓이와 높이를 잃게 될 것이다. 연구자는 근대소설을 토대로 하여 부권이 실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해석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설혹 그렇다고 하여도 부권의 한 측면인 권위의 기반은, 양육과 훈육을 넘어서서, 교육에 상응하는 구원적 이념에 있고, 그 이념이 가진 진정성 때문에 자녀에게 그 이념이 충분히 전수된다는 소설적 진실은 존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병익(1978). 대립적 세계관과 미학. 조세희(1975-1978/2000).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pp.319-336). 서울: 이성과함.
- 김소진(2002). **자전거도둑**. 파주: 문학동네.
- 김애란(2005). **달려라, 아비**. 파주: 창비.
- 김영철(2014). 텔레비전 드라마 <돈의 화신>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미지’의 극복과 그 교육적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15(3), 71-96.
- 김영철, 양진희(2014).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像). **아시아교육연구**, 15(4), 81-107.
- 김영철(2015).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나타난 아버지 상과 그 교육적 역량. **아시아교육연구**, 16(3), 1-25.
- 김정현(1996). **아버지**. 서울: 문이당.
- 김정현(2010). **아버지의 눈물**. 서울: 문이당.
- 김홍중(2009). **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동네.
- 박경리(1969-1994/1994). **土地(1-16권)**. 서울: 숲.
- 박범신(2013). **소금**. 서울: 한겨레출판.
- 염상섭(1931/2004). **삼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EBS <아버지의 성> 제작팀(2012). **아버지의 성(父性)**. 서울: 베가북스.
- EBS <파더쇼크> 제작팀(2013). **파더쇼크**. 파주: 샘앤파커스.
- 이종영(2008). **부르주아의 지배: 원천, 메커니즘, 매개, 효과**. 서울: 새물결.
- 조세희(1975-1978/2000).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서울: 이성과함.
- 채희윤(2012). **한국 소설의 아버지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柄谷行人(2010). **世界史の構造**. 조영일 역(2012). **세계사의 구조**. 서울: 도서출판b.
- 村上春樹(2009-2010). **1Q84**. 양윤옥 역(2009-2010). **1Q84(1-3권)**. 파주: 문학동네.
- Artaud, A. (1974). *Van Gogh le suicidé de la société*. 조동신 역(2003). **나는 고희의 자연을 다시 본다: 사회가 자살시킨 사람 반 고희**. 서울: 숲.
- Clastres, P. (1974). *La société contre l'état*. 홍성흡 역(200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서울: 이학사.
- Deleuze, G.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김재인 역(2001).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서울: 새물결.

- Hanson, F. A. (1975). *Meaning in cul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Hewlett, B. S. (1992). *Intimate fathers: The nature and context of Aka Pygmy paternal infant care* Ann Arbe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leck, E. H., & Pleck, J. H. (1997). Fatherhood ideals i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dimensions. In Lamb, M. E. (1997)(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pp.33-48). New York: John Wiley & Sons.
- Turner, V. W. (1967). *The Forest of symbol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Zoja, L. (2001). *The father: Historical, psycholog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이은정 역(2009). **아버지란 무엇인가**. 서울: 르네상스.

* 논문접수 2016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3월 11일 / 게재승인 2016년 3월 22일

* 김영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yc@chungbuk.ac.kr

Abstract

The Images of Modern Fathers and Family Education from the Cultural Perspective based on the Three Novels, *Three Generations*,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and *Salt**

Kim, Young-chul**

This thesis tries to analyse the images of fathers and extract the suggestions of the family education from the long novels, *Three generations* written by Yeom Sang-sup,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by Cho Se-hui, and *Salt* by Park Bum-shin. The approach to the meaning of cultural dimens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meaning of individual dimension, is the method of the thesis. Four images of fathers from the cultural perspective are extracted from the behaviors of the protagonists, Jo Eu-gwan, Jo Sang-hun, Kim Bul-i, and Sun Myung-woo respectively.

We can see the cultural images of fathers in 1930s, 1970s and 2010s from the four images of fathers. The transition of the four modern fathers' images based on the material and monetary power and the moral and ideological authority, shows us the fact that the authority is more important factor of the paternal rights, and that the rights have not fallen through the modern era. The redemptive ideology of the authority especially makes the core element of the family education which is an aspect of the family life. Contemporary fathers must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that they have to be a fosterer and a discipliner. However, if they would give up the role of educator, family education at the present and future would have lost the height and width of the family education.

Key words: cultural images of fathers, family education, *Three generations*,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Sal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tramural research grant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5.

**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